

# 숨과 심

삼애교회 목회서신

2020. 6. 14. 제41호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편집 발행인 김동환  
031-975-1885, 1884(fax)  
<http://samae.yonsei.ac.kr>  
[love3@yonsei.ac.kr](mailto:love3@yonsei.ac.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0-30

## 삼위일체 신앙

창세기 1:26-28, 고린도후서 13:11-13, 마태복음서 28:16-20

교회력으로 올해 6월 첫째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또한 이 날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억하며 환경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중요하고도 신기한 사실은 교회력에 따르는 삼위일체주일과 환경주일이 서로 긴밀히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자연 곧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기독교의 창조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위일체 주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란 말 그대로 세 가지 위격이 하나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단지 두 곳뿐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8장 19절(“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이며, 둘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권고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림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입니다. 그럼에도 2천년 교회사에서 삼위일체 신학은 기독교인의 기본 신앙고백으로 자리 잡았고, 사도신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사도

신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즉 삼위일체 신학을 신앙으로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위일체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출발점은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로부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삼위일체는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날에 이르러 동물 만드신 후 드디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고유하게 창조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창 1:26).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이신 분이신데 왜 ‘우리’인가요? 분명 히브리어 원어로도 복수명사 ‘엘로힘’이 맞습니다. 2천년 동안 이에 대한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만, 아마도 이쯤에서 파악하신 대로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고 유력한 해석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위격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내적 교류와 신비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번 글 내용, 왜 이렇게 신학적이야? 이거 뭐 신학 수업이야?’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가장 큰 실질적인 이유는 현재 기독교 이단들이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만들기 위해 오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교리를 풀어갑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과 천사가 동등한 위격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또 다른 기독교 이단에서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뜻한다고 거짓되게 해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들이 교주로 삼으려는 자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신학적이라든지 신학 수업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삼위일체에 대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용어적으로는 복수이나 신앙적으로 단수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세 위격이 하나인신 한 분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창세기 1장의 ‘우리’ 곧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내재적 ‘관계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관계성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만 머물지 않고 창조 역사를 통해 확장되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로 확장되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곧이어 “그리고 그[인간]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결정하심으로써 자신의 내적 관계를 인간에게로,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모든 피조물들 곧 자연으로까지 확장시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섭리에 따라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삼위일체 주일과 환경주일이 맞닿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환경보호는 창조 신앙의 확인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관계의 확장 또한 잘못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자’라는 표현, 혹은 그 다음 28절에 “땅을 정복하여라”는 구절을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구조로 오용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유하게 창조된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배구조로 만들어 자연을 파괴할 정도로 해도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에 대한 가장 올바른 신학적 해석은 지배적 구조가 아닌 ‘청지기직’입니다. 지배자와 청지기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습니다. 지배자는 자기가 최고인줄 알지만, 청지기는 최고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보낸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지배자로 군림하는 인간은 본인이 왕이요 사장이요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

연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청지기인 인간에게 왕이요 사장이요 신인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본인은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steward)일 뿐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청지기직을 잘 못하니 결국 그 책임이 지배자인 줄 착각하던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파괴로 빙하가 녹아 홍수가 나고, 곳곳에 이상 기온이 생기고, 대기 오염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류 전체가 고생하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연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배자처럼 자연을 정복하던 것을 멈추고 공장도 쉬고 하니 공기가 좋아지고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생물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이번 사태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깊이 있게 통찰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삼애교회야말로 이런 통찰을 얻기에 최상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저희 교회 부지를 통해 농장을 운영하십니다. 이는 삼애캠퍼스를 창설하신 배민수 목사님의 삼애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라 삼애정신, 즉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고, 농촌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동 사랑은 그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가꾸는 청지기직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장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농장을 운영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책을 하고 자연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연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연뿐 아니라 자연에 속해 있는 나와 내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사랑의 관계를 스스로 확장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사랑의 관계를 나의 가족에서, 나의 지인으로, 나의 이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으로까지 점차 확장시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